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3월 29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찬송가 23(신) 23(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만왕의 왕 내 주께서 / 찬송가 210(신) 245(구)

기도 / 한규철 집사

성경 봉독 / 마가복음 4장 10-12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하나님 나라의 비밀 / 박화신 목사

찬송 / 생명의 주여 면류관 / 찬송가 154(신) 139(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630(신) 54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열어 주셨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듣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삶 속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열립니다.

2. 많은 사람이 기적이나 흥미에만 머물지만, 참된 제자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닫히지만, 마음을 열고 은혜를 구하며 삶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제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일 설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벌거벗지
않습니다

마25:1-13
계16:5

1. 열 처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열리는지를 명확히 보여 줍니다. 겉모습은 모두 같고, 모두 신랑을 기다리며 등을 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차이는 준비한 기름의 양이었습니 다. 신랑이 더디 오실 때, 슬기로운 자는 충분한 기름으로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2. 슬기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과 삶의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디에 시간을 쏟으며, 무엇을 준비하며 사는지가 마지막 날 우리를 준비된 자로 만들거나 허탈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눈앞의 편안함과 당장의 편리함에 끌려 준비를 소홀히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주님의 지연과 예기치 않은 상황까지 생각하며 삶을 정리합니다.

3.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 모두 잠들었음에도, 깨어 있음은 단순한 긴장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과 준비이며,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문제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끝까지 주님이 입하신 옷을 벗지 않습니다(계 16:15).

4. 세상이 기준이 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준으로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순간, 우리 모두가 준비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있는 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5. 오늘 예배와 친교 후에 각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6.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EM과 연합 예배 드립니다. 성찬식 있습니다.
7. 출산한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준(박지수,아름) 김이레(김종원,하영)

4월 예배 위원

안 내	박래석		김정신		
기 도	한미숙(5)	조창(12)	박승화(19)	한광기(26)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비유는 감추기 위한 말씀이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멀리 서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께끼가 되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문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말씀이 어렵다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를 시험하기보다 초청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청중이 아니라, 더 묻고 더
배우고 더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